

# 제23-36호 주간 집단에너지 동향

Weekly News Update on CHP/DHC

2023.9.13. (수) 2023. 9. 11.(월) 17:00 기준



# 1. 국내 주요 단신

## I 'SMP 상한제'... “손실 보상” 업계 목소리에 시끌(국민일보, 2023.9.11.)<sup>1)</sup>

### ▶ 발전업계별 보상액 차등 예상

-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시행한 전력도매가격(SMP) 상한제는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음. 그러나 민간 발전사들의 재산권 침해 및 손실로 이어져 보상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- 발전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손실액은 약 2조1,000억원 규모에 달함.
- 이에 대해 열병합발전업계는 전력당국에 원가 수준의 손실 보상 방안을 요구하였으나, 지난 8일 개최된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12월 재심사 받기로 결정됨.
  - 전력당국은 열병합발전업계의 손실에 대해 전력시장의 급전지시가 아닌 열 공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실 보상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함.(주간동향 제23-34, 35호 참조)
-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사별 연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확정 시 총 보상액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.

## I 전기차 타고 지역난방 전환해도 탄소배출권 확보(이투뉴스, 2023.9.8.)<sup>2)</sup>

### ▶ 효율적인 난방 전환으로 온실가스 저감

- 지난 8일, 국토부는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건물 및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·통보함.
  - 승인된 사업은 ▶공유 전기차 도입 ▶난방방식(중앙난방→지역난방) 전환 ▶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▶보일러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39만3,000톤으로 추산됨.
- 한난은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지역난방으로 공동주택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절감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음.
- 또한, 신한은행은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전기보일러를 재생에너지 활용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.

1) 국민일보

2) 이투뉴스

## ■ [기획] 쓰레기가 에너지 자원이 되는 시대(NBN남도방송, 2023.9.5.)<sup>3)</sup>

### ▶ 쓰레기 소각으로 온수·전기 생산 가능

- 전남 순천시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간 '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'를 공개하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최첨단 시설 조성 계획을 밝힘.
  - 순천시는 2018년 '주암자원순환센터'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후 쓰레기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옴.
  - 이후 정부가 '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'를 결정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건립 계획을 추진하게 됨.
- 시설의 지상부에는 국제규격 수영장과 워터파크, 다목적 체육관, 전망대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,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해 인근 시설에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임.
- 다만,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갈등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.

## ■ 한남, 고객서비스 청렴·상생 협력 강화(에너지타임즈, 2023.9.6.)<sup>4)</sup>

### ▶ 안정적인 열공급 위한 업무협력 지속

- 지난 6일, 한남은 열사용시설 시공사 5곳, 안전점검 용역 7곳과 '고객서비스 분야 청렴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함.
- 이 협약을 계기로 열사용시설 점검 분야 투명성 강화와 청렴도 개선을 위한 열사용시설 점검 분야 해피콜 제도를 신설하고 개선 의견에 대한 열사용시설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힘.
- 한남은 현재 공동주택 182만 호와 건물 2,870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, 연간 170개에 달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협력사와 업무협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.

3) NBN남도방송

4) 에너지타임즈

# 1. 국내 주요 단신

---

## I [단독] 양주시 SRF 불허가 취소 소송 '최종 패소'(프레시안, 2023.9.11.)<sup>5)</sup>

### ▶ 대법원, 시 항소 기각...민간 회사 열병합발전소 가동 가능

- 최근 양주시는 발전사업체 A사에 제기한 '고형연료(SRF)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'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\* 기각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함.
  - ※ 심리불속행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3심에서 이를 다투지 않는 법적 절차를 의미함.
  - 발전 사업체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.5MW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양주시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 시설 사용 불허가를 통보함.
  - 이에 A사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나 양주시가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허가 승인을 하지 않자 A사는 양주시를 상대로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함.
- 한편, 양주시는 다른 발전사업체 B사와도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B사와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됨.
  - B사는 2019년 양주시에 고형연료 발전소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양주시가 불허하여 소송을 제기함.

---

5) [프레시안](#)

